

## 70年代의 이야기들

### 사명감을 갖자

李 興 善

배움의 길은 끝이 없습니다.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했을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배움의 길을 부단히 걸어 왔습니다. 그리고도 아직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궁 무진합니다. 그래서 옛 사람은 말했습니다.

「平蕪盡處是青山 行人更在青山外」

배워도 배워도 인간은 항상 배움의 밖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한계를 느껴 좌절케 하는 일면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배워도 또 배울 것이 있기에 인간은 그것을 정복해 나가는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배움의 결정이 모여 문화를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부터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조그만 반도, 세계의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닌 문화적 유산은 그 깊이와 기교에 있어서 세계 어느 나라의 추종도 불허할 만큼 찬란한 것입니다.

일본이 요즈음 경제대국이 되어 세계의 강국으로 군림하려 하지만, 그들이 가진 문화의 근간은 모두 우리 민족이 전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고, 또 그것을 다른 민족에게 전수, 향유케 한 우리가 오늘은 왜 세계 강국들의 틈바귀에 끼어 국제 정세의 흐름에 당황해야만 하는 슬픈 위치에 머물러 있게 된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해 배움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배움에 대한 사명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배움은 현실의 부조리와 모순을 타개하고 현실을 보다 나은 상태로 이끌기 위한 학문이 아니라 탁상 공론과 추상 이념만을 논하는 허공에 뜬 배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그러한 배움을 너무나도 오래 지속했고, 더구나 발전적인 배움을 오히려 타부시했던 것입니다. 발전적인 배움을 민감하게 받아들인 일본은 지금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세계의 강국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십시오. 배움은 단순히 지식과 학문의 습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활이어야 하고, 또 우리의 생



70년대의 동산 캠퍼스(공중촬영)

활에 대한 자세이어야 합니다.

중동전쟁이 발생했을 당시 미국에 유학하는 이스라엘과 아랍의 학생들이 갑자기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읍니다. 조사해 본 결과 이스라엘 학생들은 모국을 지키기 위한 전쟁에 참가하려고 속속 귀국하고 있었고 아랍의 학생들은 징용이 두려워 등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어느 신문기자가 전쟁중인 본국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인에게 당신은 왜 그 혼란 속으로 자진해 들어 가느냐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1973년도에 당신은 어디 있었읍니까? 하는 후세들의 물음에 떳떳이 대답할 수 있게 되기 위해.”

다시 말하거니와 배움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에 대한, 우리에게 대한 사명감의 습득이며 동시에 인류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 인간의 노력이어야 합니다. 배움의 길은 끝이 없습니다. 그 끝없는 배움의 길을 걷는 데 있어 배움, 그것과 민족에 대한 사명감없이 우왕좌왕하는 어리석은 학생이 절대로 되지 맙시다. (이사장)